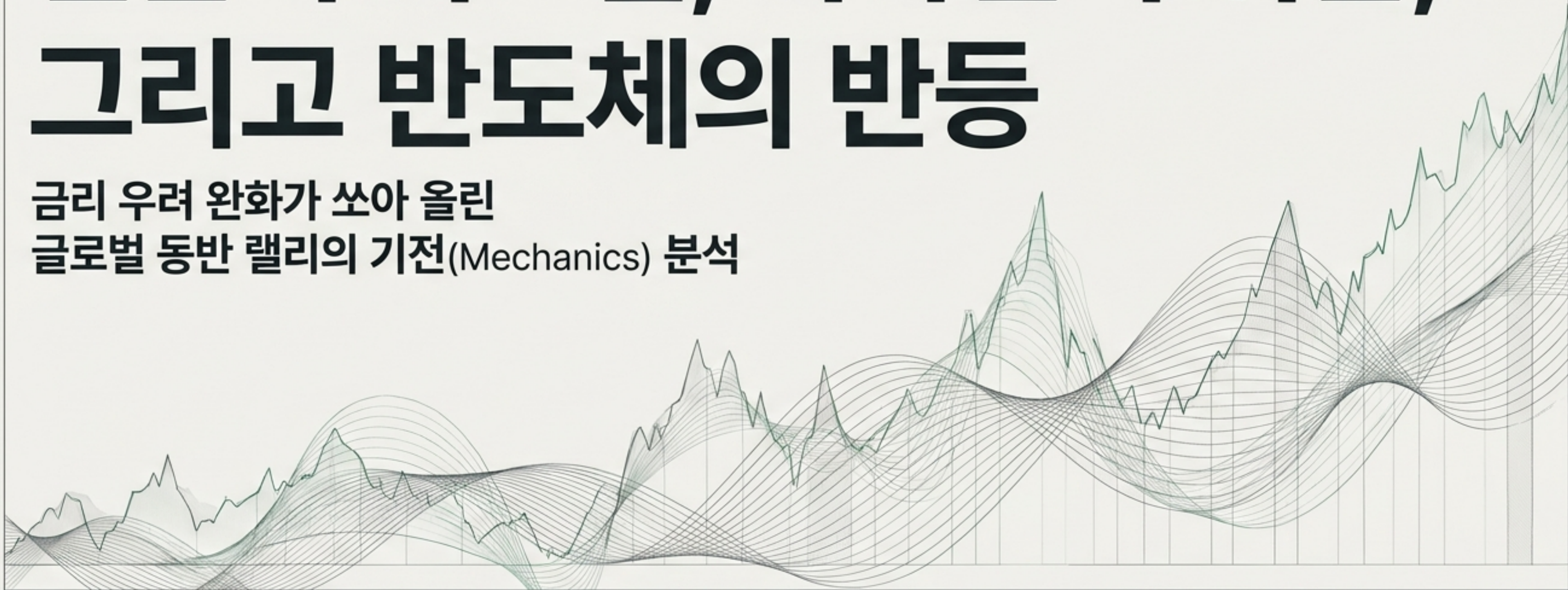


# 연준의 시그널, 외국인의 귀환, 그리고 반도체의 반등

금리 우려 완화가 쏘아 올린  
글로벌 동반 랠리의 기전(Mechanics) 분석



The Macro Domino Effect





## Macro & FICC (매크로 환경)

미 국채 금리 안정화 기대  
vs 유가(WTI) \$89.61 상승  
(중동 긴장)

금리 인상 공포가 잦아든  
틈을 타, 원유와 금 중심의  
인플레 헷지 수요 지속.



## Global Equities (글로벌 증시)

월러 연준 이사 발언 +  
고용 지표 호조 기대감

통화정책 부담 완화로  
아시아, 유럽, 미국 증시가  
동기화된(Synchronized)  
랠리 시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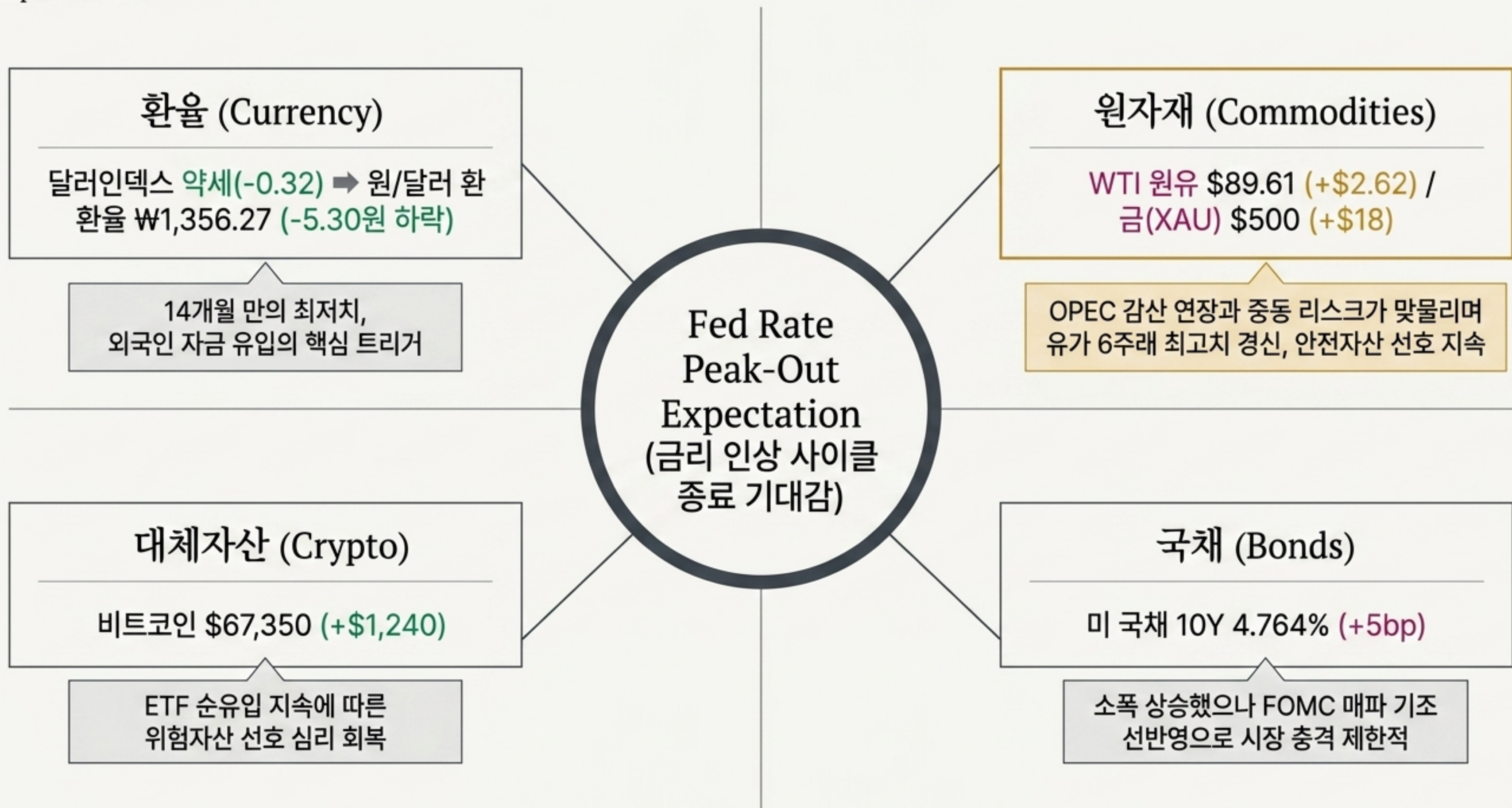


## KOR Market (국내 증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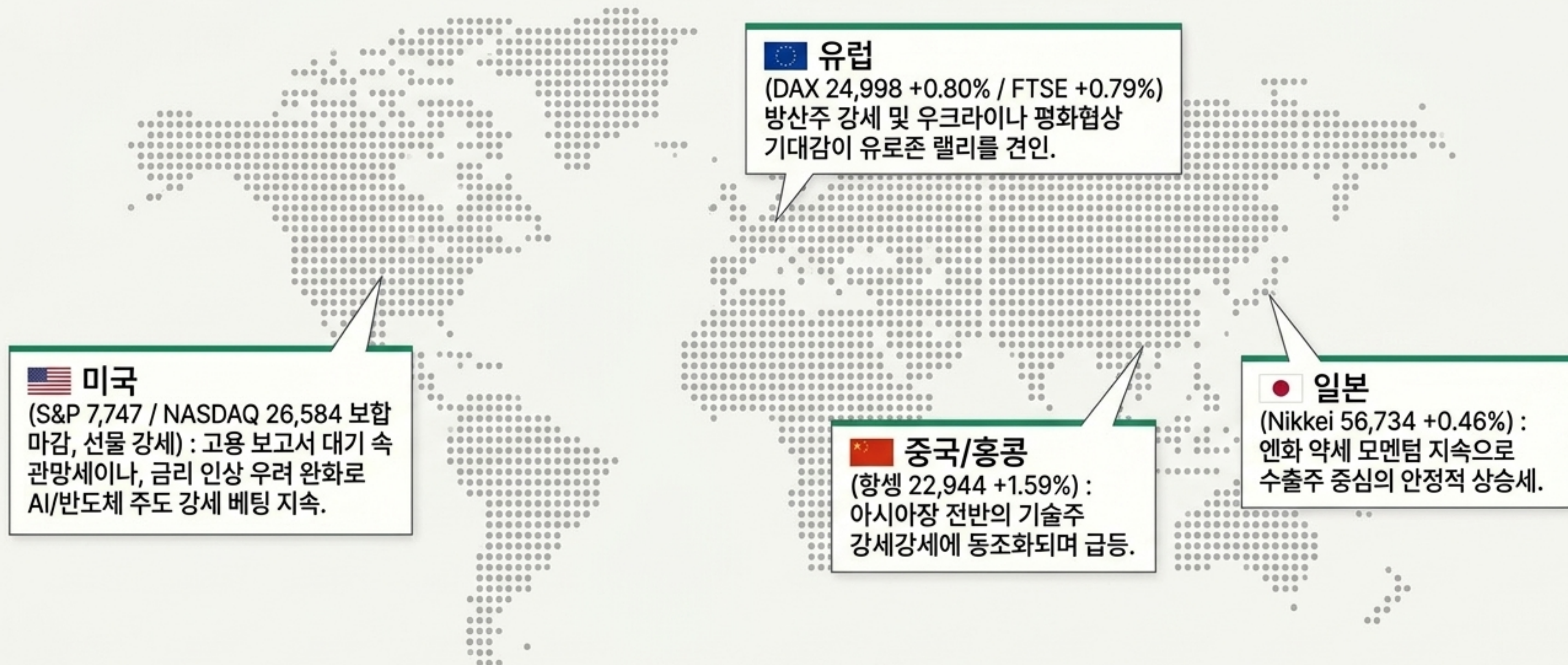
코스피 6,687.21 (+1.64%) /  
코스닥 813.50 (+2.95%)

환율 안정(₩1,356.27)이  
촉발한 외국인과 기관의 귀환,  
AI·반도체가 시장 견인.









미국의 통화정책 부담 완화가 글로벌 유동성의 병목을 해소하며,  
아시아 기술주 랠리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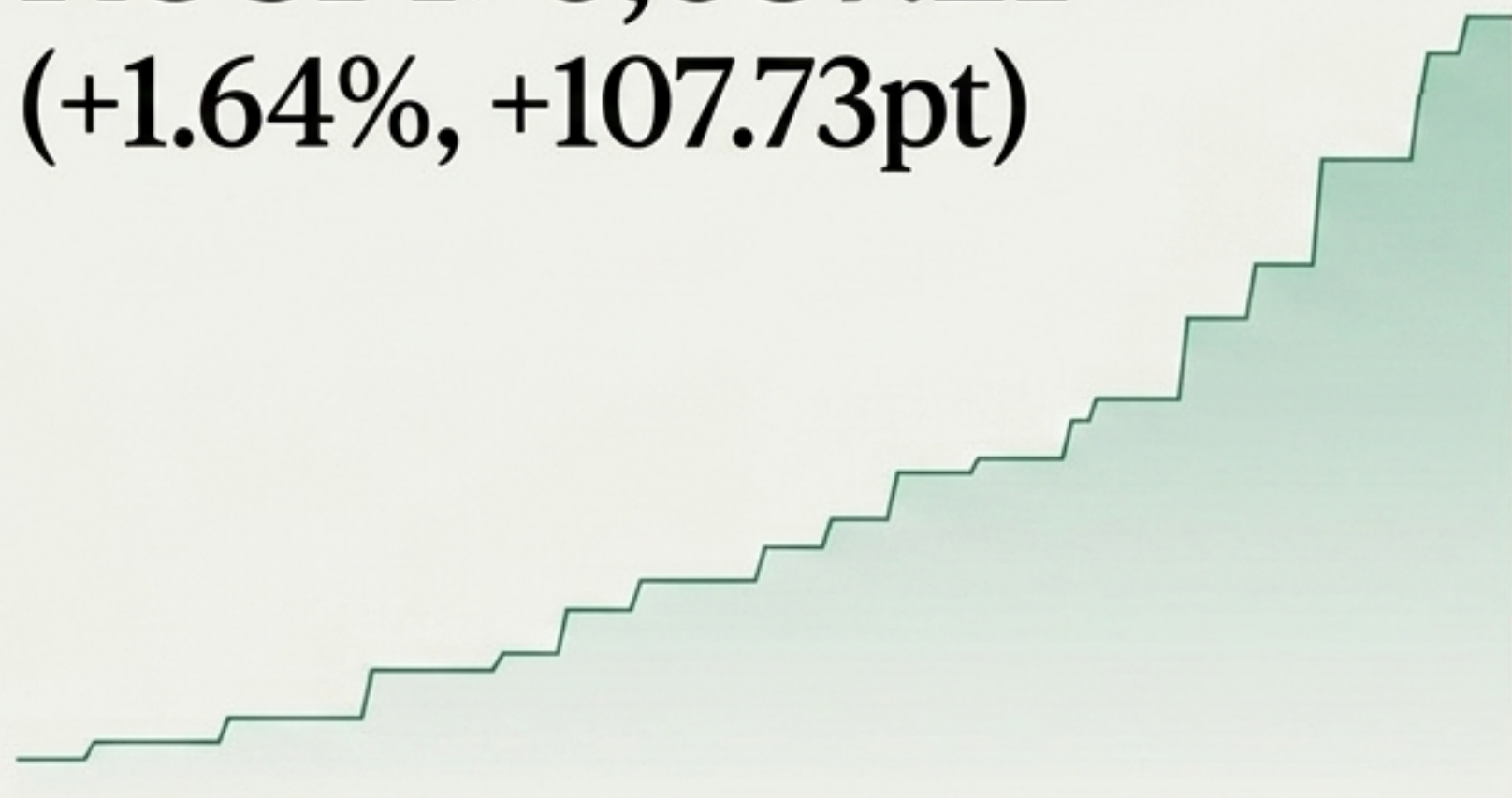


## Key Ins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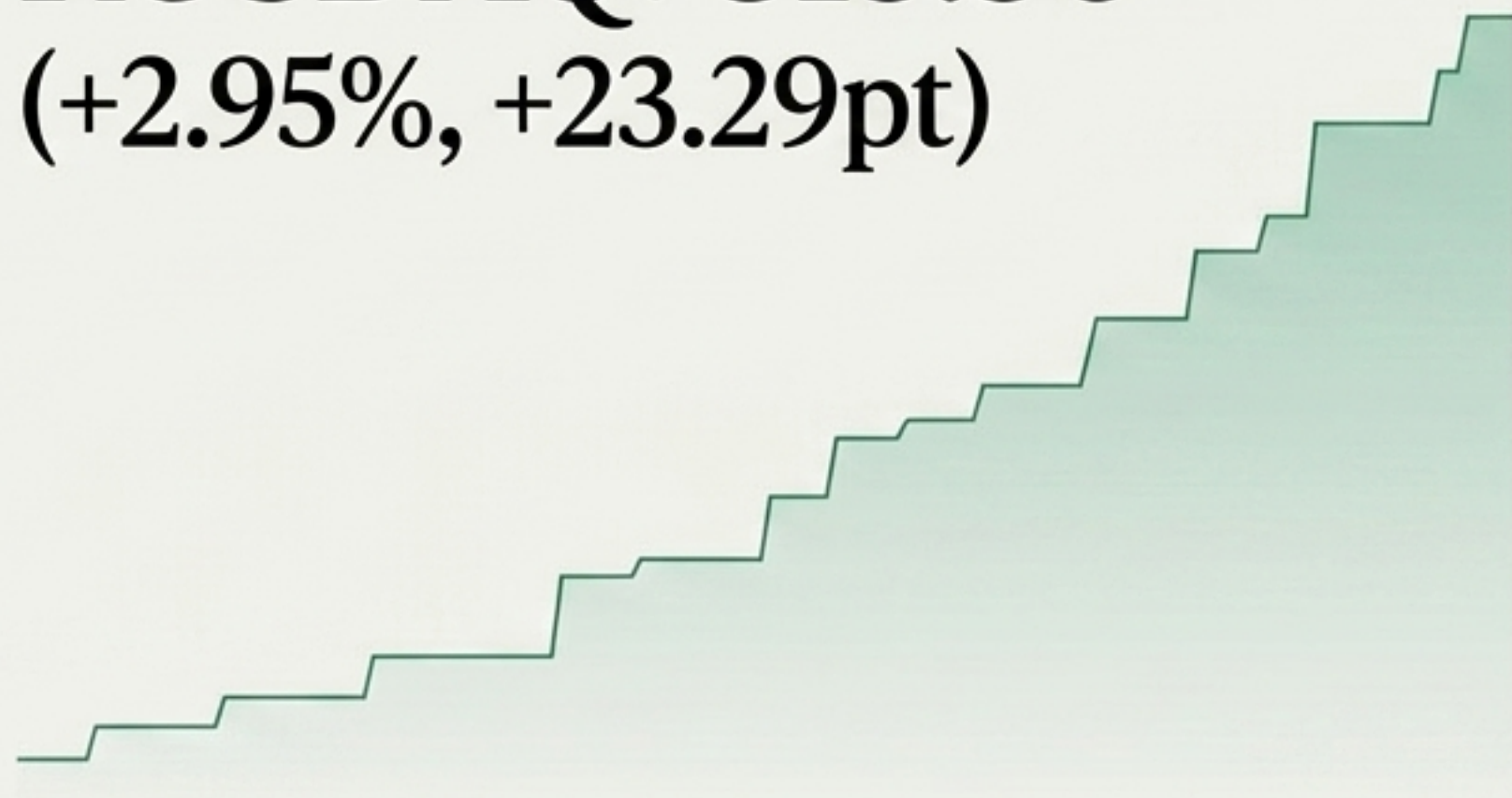
고용 지표 호조와 금리 우려 완화 속에  
극단적 **섹터 로테이션(Sector Rotation)**  
발생. 방어주를 팔고 낙폭과대주와  
에너지로 자금 이동.



**KOSPI: 6,687.21**  
(+1.64%, +107.73pt)



**KOSDAQ: 813.50**  
(+2.95%, +23.29pt)



미국채금리 안정에 외인·기관 복귀... 금리 우려 완화에 반도체가 끌어올렸다...

코스닥 2.95% 올라... 끌어올렸다... 코스닥 2.95% 올라...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

Step 1

Step 2

Step 3

Step 4

미 국채금리 안정 &  
금리 동결 기대



원/달러 환율 급락  
(14개월만 최저, ₩1,356.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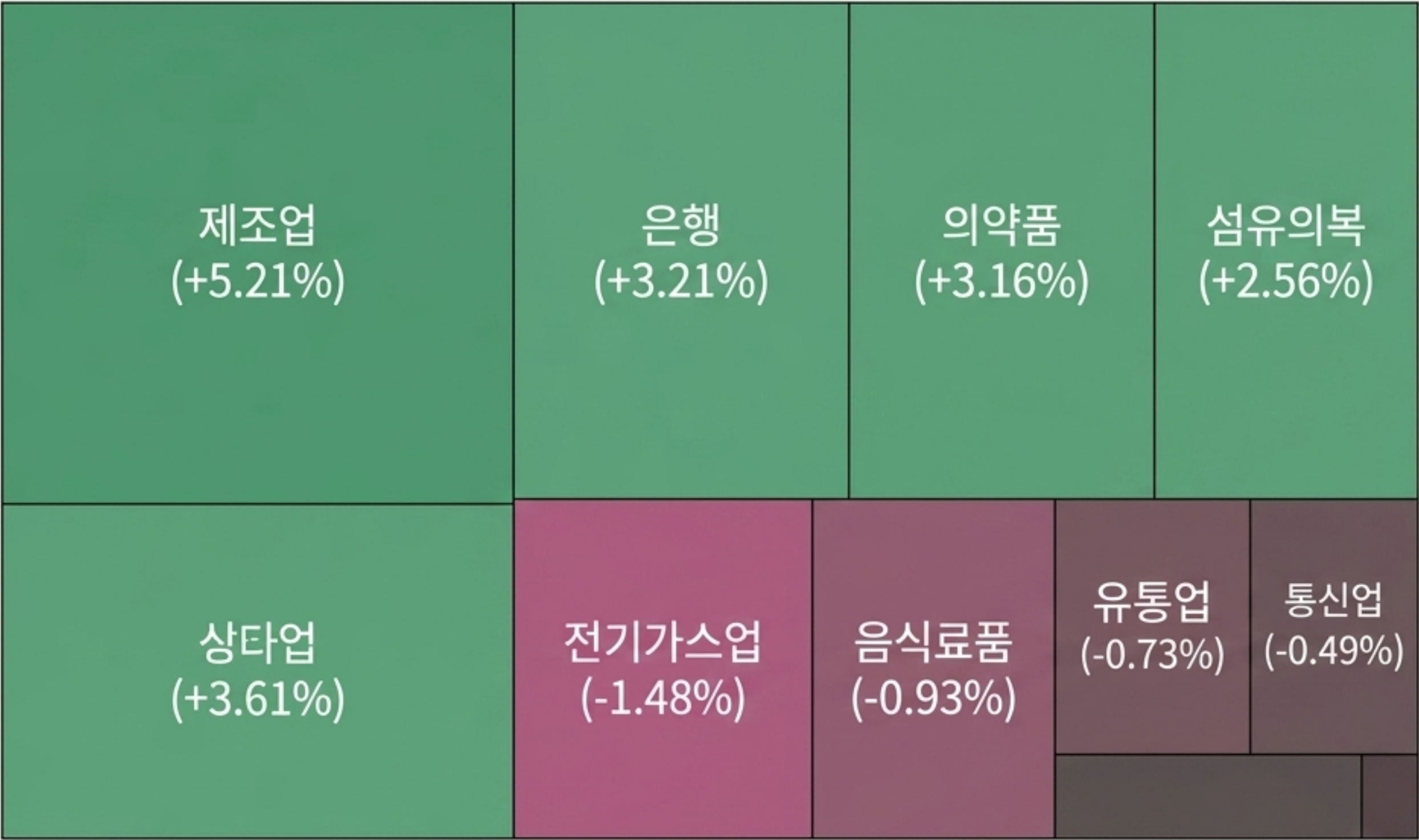


외국인/기관 동반  
'사자' 강력 유입



코스피 6,700선 눈앞,  
코스닥 810선 회복





리스크 온(Risk-On)  
장세의 전형적 패턴

- 금리 부담 완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조업(반도체 포함)과 은행주가 상승을 주도.
- 반면,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전기가스, 음식료, 통신 섹터는 완벽하게 소외되며 자금 이탈 현상 뚜렷.



## The Winners (글로벌 AI 랠리 동기화)

SK하이닉스: 1,647,000원 (+3.20%)



- 대장주 역할 톡톡, HBM 수요 기대감

NAVER: 213,500원 (+2.89%)



- 금리 안정에 따른 플랫폼 성장주 매수세 유입

삼성전자: 255,500원 (+2.20%)



- 외국인 러브콜 1순위

삼성SDI: 548,000원 (+1.67%)



## The Laggards (업종 순환매 속 소외)

삼성바이오로직스: 1,447,000원 (-2.03%)



- 단기 차익 실현 출회

LG에너지솔루션: 358,500원 (-1.92%)



- 전방 산업 수요 둔화 우려 잔존

LG화학: 282,000원 (-1.74%)



POSCO홀딩스: 337,000원 (-1.4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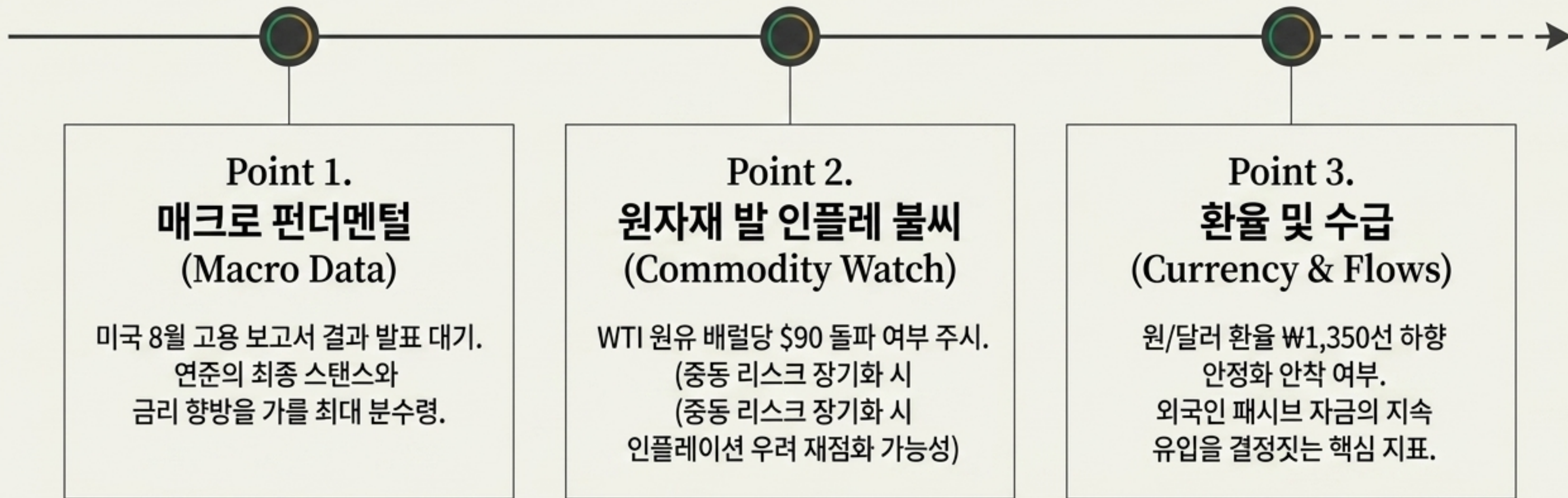


-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약세 흐름

**반도체·AI 밸류체인으로의 강력한 쏠림 현상.  
2차전지와 바이오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숨 고르기 진입.**



# 기대감으로 쏘아 올린 랠리, 이제는 데이터로 증명할 시간



금리 동결이라는 '내러티브'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면, 하반기 장세의 지속가능성은 주요 기업들의 '실적(숫자)'이 결정할 것입니다.